

#### #4 고시원 / 저녁 8시

-진건은 그 사건이 있던 후에 잠시 고민에 빠진다. 스스로 정당화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가 호중에게서 연락이 온다.

진건은 약간의 충격과 죄책감에 매트리스에 다리를 피고 앉아 멍때린다.  
카메라가 박살나고 호중이 진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FLASHBACK

뒤에서는 연출이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고 호중이 자신에게 올상으로 말하는 모습이 슬로우로 보인다.

FLASHBACK끝

진건은 한숨을 쉬고 표정을 가다듬고 앞을 보면서 읊조린다.

진건 :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그러는 순간 호중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건은 호중임을 확인하고 잠깐 고민한다. 전화가 한번 끊기고 다시 호중에게서 전화가 온다. 진건은 고민하다가 통화버튼을 누른다.

#### #5 포장마차 / 저녁 9시

-술을 마시고 있는 호중에게 간 진건은 그의 한탄을 듣고 고양이를 맡겨달라는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게 된다.

호중이 자리 안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고 이미 엄청 취한 채 술을 따르고 있다. 진건은 안쪽에서 울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호중을 본다. 호중은 그런 진건을 발견하고 반갑게 반긴다.

호중 : 야! 진건아!

진건은 호중을 보고 작게 한숨을 쉬고 호중 쪽으로 간다.

진건은 호중 앞에 앉는다. 소주 세 병이 놓여있다.

호중 : 마실래? 안주 시킬까?

진건 : 됐어.

호중 : 하... 조금 남는 것보다 그냥 다 쓰는 게 낫겠지?

호중 술을 따른다.

호중 술을 들이킨다.

진건은 눈치보다가 호중에게 묻는다.

진건 : ...너 카메라 어떻게 됐어?

호중 : 아... 그거? 거기 렌탈 샵에...

진건 : ...

호중 : 그냥 딱 액수만 말하더라.

진건이는 호중을 쳐다보지 못하고 말한다. 술잔 쪽을 보며

진건 : ... 돈 있어?

호중은 술잔에 술을 따르며 얘기한다.

INSERT 소주잔

(소리)호중 : ...없는데 이려고 있다. 병신 같게... 요즘 배달이 제일 많이 주나?

진건 : ...

호중 : (고개숙인 진건을 뻘뻘 쳐다보다가) 내가 너 반만 닮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텐데...

진건 : 어?

호중 : 항상 냉정하잖아. 프로답고 나대지 않고 조용하고... 딱 사진작가

진건은 테이블 위에 있는 호중의 핸드폰이 계속 인스타 알림으로 울리는 것을 본다.

(소리) 호중 : 근데 이렇게 출썩대고? 사람들한테 들이대고 또 실수하고... (흘리는식으로 말한다.) 너는 어떻게 항상 그래...

호중은 울리는 핸드폰을 보고 한숨을 쉬고 그냥 뒤집어 놓는다.

그리고는 약간 돌변한 듯한 표정으로 의미심장하게 물어본다.

호중 : 근데 그거 진짜 너 맞아?

진건 : (흠칫한 표정으로) 어?

호중 : 그냥 사진 찍을 때...

진건 : 뭐 소리야?

호중 : 넌 이거 왜 시작했어?

진건 : ...

(소리)호중 : 그냥... 내가 볼 땐 이게 아무리 원해도 감당 못 하는 게 있나봐. 내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진건은 짜증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신의 신발을 본다. 많이 헤져있다.

INSERT

진건의 신발이 매우 낡아 있다.

호중 : (잠깐 뜬 들였다가) 진건아... 나... 돈 좀 빌려주면...

진건 : ...나 돈 없어. 알잖아.

호중 : (잠시 옆드려서 얼굴을 세계 찡그리고 얼굴에 힘 줘서 빨개진 상태로 웃으며 고개를 든다.) 그러면 나 고양이만 잠깐 봐주면 안돼?

진건 : ...

호중 : (진건의 손을 붙잡고 비는 목소리로 애교적인) 제발 한 번만 제발...

진건은 난감한 듯한 표정으로 아무 말 하지 못한다.

## #6 고시원 / 아침

-고양이를 받아와서 난장판이 된 집을 보는 진건이 고양이를 팔아치워 카메라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진건은 매트리스에서 잠을 깬다.새우등으로 누워있는 진건은 목을 굽으면서 잠에서 깬다. 몸을 돌려 정면으로 자세를 취하고 일어나려 한다. 잠이 덜 깬 채 목덜미를 벅벅 굽는데 너무 가려워 세계 굽었더니 발강게 살이 일어났다.

진건 : (잠결에)아 씨...

진건은 눈을 비비고 방을 멍하니 본다. 집안은 고양이로 인해 난리가 나 있었다.

INSERT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비닐들이 밖으로 나와 있었고 생수통이 엎어져서 물이 흘러 있었다. 가방이 축축하게 젖어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고양이가 위풍당당하게 서서 진건을 노려보고 있다.

진건은 이를 보고 (뭐지...?)하는 표정으로 둘러보다가 고양이를 발견한다.진건은 잠시 생각하다가 “카메라가 어딴지.”라는 생각에 서둘러 고개를 돌려 찾아본다.

다행히 카메라는 책상위에 있었지만 가방밖에 나와 있었다. 진건은 재빨리 책상으로 가서 카메라를 가방에 집어넣고 책상 옆 의자에 앉는다.

진건 : 하...

그리고는 고양이를 똑같이 노려본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고 고양이 분양가를 찾기 시작한다. 진건은 핸드폰으로 40~80만원 사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약간 놀란다. 그리고는 자신의 카메라를 바라본다.

진건은 고양이를 팔아 생긴 돈으로 카메라를 새로 장만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카메라와 핸드폰을 번갈아 본다.

## #7 놀이터 / 낮

-고양이 거래를 위해 약속장소로 나온 진건, 거래를 다 마치고 가려는데 여자가 질문들을 던진다. 진건은 빨리 거래를 하여 돈을 얻기만을 바라보고 있다.

고양이를 팔기 위해 거래자와 연락 후 약속장소로 가는 진건. 진건은 놀이터 근처 벤치에 잠

(소리)진건 : 아 네네 지금 나가겠습니다.

진건은 바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다시 종량제에 넣는다.

#### #8-2 고시원 밖의 골목 / 낮

-진건은 종량제 봉투를 골목에 버리고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려 한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쓰레기 배출 구역이 아니라며 제지하자 뿌리치고 가버린다.

진건은 밖으로 나와서 골목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 발로 쓰레기가 쓰러지지 않게 대충 툭툭 건드린다. 카메라 거래를 하러 가려던 찰나, 어떤 아주머니가 뒤에서 진건을 붙잡는다.

아주머니 : 그 저기요. 거기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진건 : 네?

아주머니 : 방금 버린 거 저기 쓰레기 버리는 데 있으니까 저기다 버려요.

진건 : 아... 제가 바빠서 나중에... (아주머니 손을 떼면서 돌아선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다시 붙잡는다.

아주머니 : 여기 버리면 벌금 물어요~ 저기 별로 멀지도 않은

그러자 진건이 돌변하여 아줌마의 손을 격하게 뿌리친다.

진건 : 아이 씨늬

살벌한 표정으로 아줌마를 본 뒤 빠른 걸음으로 가버린다.

아줌마 : 아잇... 저 (놈이...)

#### #9 진건의 촬영장 / 낮

-진건은 카메라를 산 후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그가 호중의 촬영장에서 당했던 것을 갚아준답시고 예의 없게 행동한다.

FADE IN

분주한 촬영장에서, 연출이 막내 연출에게 지시하고 있다. 진건이 새로 산 카메라가 클로즈업되어 있다.

(소리) 연출 : 그 다 준비됐죠?

(소리) 막내 연출 : 아 넵!

연출 : 그... 혹시 부서마다 막내랑 그 바로 위까지는 가라고 해줄 수 있나..?

막내 연출 : 네?

연출 : 아... 그 작가님이 사람 많은 데서 하기 싫다고 하셔서... 그래야 될 거 같아.

막내 연출 : 아... 저는 그럼... 저도 가야 하나요..?

(소리) 연출 : ...우선 다른 부서에 말하고 오고 잠깐 있어 봐. 어 작가님 오신다. 빨리 다 얘기 돌리고 와.

(소리) 막내 연출 : 넵..

김진건이 촬영장에 들어오자 스태프들이 그를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한다. 연출이 진건을 발견하고 급하게 뛰어온다.

연출 : 김진건 작가님 맞으시죠?

(소리) 진건 : 네.

(소리) 연출 : 저희 연출안 짜서 작가님께 보냈는데 그거 보셨나요? 별말씀이 없으셔서 우선 그걸로 컨펌했거든요.

진건 : 아. 대표님하고 연락해서 바꿨어요.

연출 : 네? 어디를요?

진건 : 아 초안이 너무 별로라서 그냥 제가 다시 다 짰습니다.

(소리) 연출 : (당황하면서) 아... 그런가요? 수정사항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바꿨을 텐데...

진건 : 아... 예술적인 거라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연출 : 아... 네...

그때 막내 연출이 콘티 뭉치를 들고 다가와 연출에게 말을 건다.

막내 연출 : 저 작가님! 이거 저희 연출안 뽑은 건데 참고하실지도 몰라서 뽑아왔습니다.

연출 : (약간 눈치 주면서 속삭이면서) 그 저희... 콘티 바뀌어서 그거 없어도 될 거 같아요.

막내 연출 : 아... 알겠습니다. (연출에게만) 저 뭐 더 필요한 거 없나요?

(소리) 연출 : 아 이제 괜찮아. 그 혹시 모니터 어디있어?

(소리) 막내 연출: 아 저기 있

진건 : (스태프를 쳐다보며) 저기 혹시 관계자세요?

막내 연출 : (어리둥절하며) 네? 아 네! 저 연출 막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FLASHBACK

진건은 그 스태프가 예전 호중과의 촬영 때 자신에게 관계자 외 출입금지니 나가달라고 했던 사람임을 기억한다.

FLASHBACK 끝

진건은 스태프를 잠시 보다가 얘기한다.

진건 : (스태프를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면서) 아... 저 그럼 커피나 좀 많이 사 와주세요.

(소리) 막내 연출 : 네?

진건 : (막내 연출을 쳐다보지 않은 채 시선을 연출로 돌리고) 연출님 그 얘기 전달했나요?

연출 : 네? 어떤...?

(소리) 진건 : 머릿수만 많은 촬영장 좀 안 좋아해서.

연출 : 아아... 네 잠시만요.

연출이 잠시 눈치를 보다가 연출 막내에게 살짝 눈치를 준다.

막내 연출 : 아... 몇 잔 사올까요?

진건 : (여전히 스태프를 보지 않고) 그냥 적당히요.

## #10 이사한 집 / 저녁

-이사한 집에 누운 진건은 촬영장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곱씹어본다. 변화한 자신에게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던 중, 어떤 큰 에이전시로부터 계약하자는 연락을 받는다. 미팅을 잡은 후 잠깐 고민하다가 자신을 도와줬던 호중이 생각난 진건은 SNS에 호중을 검색해보지만, 호중에 관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뭔가 짝짝하다고 느끼는 진건이다.

진건은 촬영을 마치고 이사한 집으로 온다. 문 앞에는 아직 옮기지 못한 짐들이 있다. 진건은 우선 도어락의 비닐을 뜯어내고,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집 안으로 짐을 옮긴 진건은 거실 구석 바닥에 앉아 잠시 멍 때리다가, 스르륵 누워 천장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속삭이듯 되뇌는다.

진건 : 커피나 좀 많이 사 오세요... 커피나 좀... (별 대수가 아니라는 척하면서) 썸...

그리고 진건은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를 보기 시작한다. 진건의 계정 디엠 창에는 진건의 작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가득하다. 그런 디엠들을 읽지 않은 채로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던 진건은, 유명 사진 에이전시에서의 디엠을 발견하고 놀란다. 놀라 확인해보니 '진건의 인스타 게시물을 통해 작업을 인상 깊게 보았고, 에이전시에서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는 내용이였다. 진건은 에이전시 계정의 프로필을 눌러 팔로워 수가 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더니 "화, 목 6시 이후에 미팅 잡아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보낸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진건. 잠시 뒤 에이전시로부터 "그럼 시간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이 온다. 진건은 다시 답장을 할까 고민하다 그대로 핸드폰을 잠그고 다시 몸을 눕힌다. 눈을 감고 스스로 도취된 표정을 짓던 그는, 문득 예전에 호중이 자신에게 잘해줬던 것이 기억나 짝짝한 표정으로 눈을 뜬다.

FLASHBACK

#2에서 호중이 카톡으로 자신에게 큰 프로젝트가 생겼다며 같이 와서 도와주면 잘 말해주고 일당도 주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남.

FLASHBACK 끝.

진건은 천장을 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들어 인스타에서 호중을 검색한다. 그리고 게시물을 보지만 게시물이 다 지워져 있다. 진건은 의아한 표정으로 카톡으로도 들어가 보지만 카톡도 프로필이 다 지워져 있다. 진건은 뭔가 짝짝한 표정을 짓지만 이내 그냥 무시하고자 마음먹는다.